

독문학개론 2016SS

강의노트 3

이번 주에도 작품을 읽고 토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학기 중에 작품을 읽고 정리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모든 작품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간의 뜻이 무엇인지 작품 속의 인물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까 등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얻는 것이 분명 많을 것입니다.

3월 22일(화) 강의 내용

1. 〈현자 나탄 Nathan der Weise〉과 계몽주의에 대한 그룹 토론
2. 어떤 토론 주제가 가능할까?
 - 2.1. 작품과 관련한 토론: 작가, 생성배경, 내용, 반지의 우화, 등장인물 분석 등
 - 2.2. 주제: 유럽 혹은 독일의 중세에서 기독교는 어떤 위치였을까? 종교적 관용과 갈등? 계몽주의란? 계몽주의가 말하는 이성은? 인간은 이성적인가? 무엇을 위한 이성인가? 등

3월 24일(목) 강의 내용

1. 레싱, 〈현자 나탄〉, 계몽주의 등에 관한 교수자의 설명: 따뜻한 봄날이라 그런지 교수자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강의가 일부 학생에게는 수면제였네요. 물론 잠깐 졸았지만... 다음에는 중간에 모두 기지개를 한번 펴도록 하지요.
2. 계몽주의: 시대정신이자 문예사조!
 - 2.1. 칸트: “계몽이란 무엇일까 Was ist Aufklärung?”

“계몽은 자신에서 비롯된 미성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때 미성숙은 다른 사람의 인도 없이 자신의 오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성숙함의 원인이 오성의 결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도함 없이 자신의 오성을 사용할 결의와 용기가 없는 것에 있다면, 이런 미성숙함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칸트는 과연 인간이 어떤 미성숙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했을까?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에 무기력하게 기대고 있는, 바로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하는 능력으로서의 이성, 즉 사고능력으로서의 이성은 근대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성에 관해 말할 때 중요한 기준은 이성이 누구를 위한 것으로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으로 작용했는지, 이로 인해 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몽주의의 이성은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이성이 지배적인 정신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중세, 르네상스, 계몽주의 등의 세속화 및 근대화 과정을 추적해야 합니다.
 - 2.2. 세속화 과정(Säkularisierung)
 - 2.2.1. 중세: 신에 의한, 신을 위한, 신의 사회!

중세는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 등의 의미를 신을 기준해서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신

은 인간의 탄생, 성장, 죽음 그리고 사후의 삶까지 결정짓는 존재이고, 성직자들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가지며 성직자 중심의 사회체계가 형성되고 조직화된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인간적 혹은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신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2.2. 르네상스: 인간의 재발견! 그런데 어떤 인간의 모습일까?

르네상스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정되었던 인간의 현실적, 실질적 욕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인문주의 운동으로서,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과 종교의 권력 하에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인간은 이제 신의 뜻뿐 아니라, 인간의 욕구까지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인간의 모습을 재발견하려고 했습니다.

2.2.3. 종교개혁: 폭력적인 제도로서의 교회를 부정하고 신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종교의 부패로 인해 신에 대한 의혹은 점점 깊어지고 동시에 인간의 자기실현 욕구는 커져 가는 상황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발생합니다.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95개조의 반박문으로 교황과 가톨릭의 부패를 고발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에 의한 기독교의 개혁(신교의 등장 Protestant)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종교와 신 중심의 중세 질서 자체가 약화됩니다. 이로써 종교의 권력이 그 힘을 잃게 되는 세속화 과정(Säkularisierung)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 세속화 과정은 1618년에 시작된 30년 전쟁(신교와 구교의 무력 충돌)으로 가속화됩니다.

2.2.4. 합리적 사고와 자연과학의 발달: 관찰과 논리적 사고가 신의 자리에 들어서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등은 천체와 지구의 움직임을 기존의 종교적 신념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이고 동시에 종교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를 통해 종교 기반의 세계관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자연과학의 발달은 후에 산업화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2.2.5. 위에 거칠게 설명한 세속화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은 중세 사회를 지탱했던 신 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인간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신, 인간, 사회, 삶 등을 재점검하고 그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랜 과정을 거쳐 전개된 계몽주의는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사상적 운동이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 땅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며, 또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자라게 한 토양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몽의 정신은 19세기와 20세기를 넘어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보에 대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2.2.6. 이런 정신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18세기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개인과 국가, 시민과 노동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실현해왔으며, 기존 사회질서의 해체와 도시화를 겪게 됩니다. 동시에 유럽의 가치를 보편적 가치로 확대 재생산하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것은 유럽과 미국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보여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국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레싱 소개

- 3.1. 독일 18세기 대표적인 계몽주의 지식인(1729-1781): 작가, 비평가, 문학이론가
- 3.2. 독일 최초의 자유 문필가로서 궁정의 후원으로부터 독립했음.
- 3.3. 작가, 문학(드라마)이론가(함부르크 비극론), 문학비평가(라오콘)
- 3.4. 작품: 희극 『젊은 학자』, 『유대인들』, 『민나 폰 바른헬름』, 『사라 삼프존 아가씨』, 『필로타스』 『에밀리아 갈로티』 『현자 나탄』

독일시민비극이론: 레싱의 시민비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계몽주의 시대에 맞게, 즉 시민과 교육을 중심으로 응용한 것이다. 이 점은 주인공을 시민으로 삼고, 계몽주의 특징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라오콘: 트로이의 신관인 라오콘은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의 트로이 목마에 대한 비밀을 말하려고 하다가, 두 아들과 함께 큰 뱀에 감겨 죽게 된다. 그 고통을 표현하는 조각품이 바티칸에 있는데, 여기에서 라오콘은 입을 살짝 벌리고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베르길리우스의 시 「아에네이스」에서 라오콘은 그 고통을 아주 격렬하게 묘사하고 있다. 레싱은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 고통이 다르게 표현되는 근거로 공간예술과 시간예술의 차이로 들고 있다.

4. 『현자나탄Nathan der Weise』

- 4.1. 작품의 생성배경: 신학자 괴체와의 신학 논쟁, 신학적인 글의 발표 및 출판 금지, 신학적 논쟁에 대한 문학적인 대응으로서 작품 발표
- 4.2. 작품 소개
 - 4.2.1. 5막으로 이루어졌고, 각 막은 다시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4.2.2. 등장인물: 살라딘(Sultan Saladin), 시타(Sittah), 나탄(Nathan), 레하(Recha), 다야(Daja), 기사(Ein junger Tempelherr), 탁발승(Ein Derwisch), 총대주교(Ein Patriarch von Jerusalem), 수사(Ein Klosterbruder) 등
 - 4.2.3. 작품의 시대적 배경: 1192년 예루살렘
 - 4.2.4. 작품의 주제: 종교적 관용, 계몽주의, 인본주의,
 - 4.2.5. 주제의 현재적 적용: 종교적 관용
 - 종교적 관용이란 무엇일까? 구별과 차별의 차이
 - 종교적 갈등의 대표적인 예: ‘십자군 전쟁’, ‘유대인 축출’, ‘30년 전쟁’, / 지금 한국은? 가족 내의 갈등(제사, 장례식, 결혼식), 미션스쿨(특히 중고교), 특정 종교의 정치화, 회교도 증가, 할랄음식 등

3월 29일(화) 강의 계획

1. 뷔히너, 〈보이체크〉에 대한 그룹토론
2. 토론 순서

- 작품: 작가, 내용, 등장인물 분석 등
- 주제: 보이체크와 마리아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당시의 결혼은? 결혼과 교회? 등

3월 31일(목) 강의 계획

1. 뷔히너와 〈보이체크〉 그리고 사실주의에 대한 설명
2.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유익한 강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본 강의에서 논의되는 정치, 종교, 성 등에 관한 내용은 강의에 국한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점으로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 포탈에 여러분의 개인정보(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 특별한 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메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건강과 '차분한' 독서를 기원하며...